

제4절 중남미권 영화 시장의 동향 및 전망

1. 중남미권 영화 시장의 개요

2009년 24억 5,700만 달러 규모였던 중남미권 영화 시장은 2010년에 26억 5,300만 달러 전년 대비 8.0%의 성장을 보였다. 향후 5년간 연평균 9.4%의 성장세로 2015년에는 41억 5,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남미권 영화 시장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박스오피스(극장용) 시장과 모바일 시장으로 각각 11.5%, 26.8%로 예측되고 있다.

<표 III-43> 중남미권 영화 시장 규모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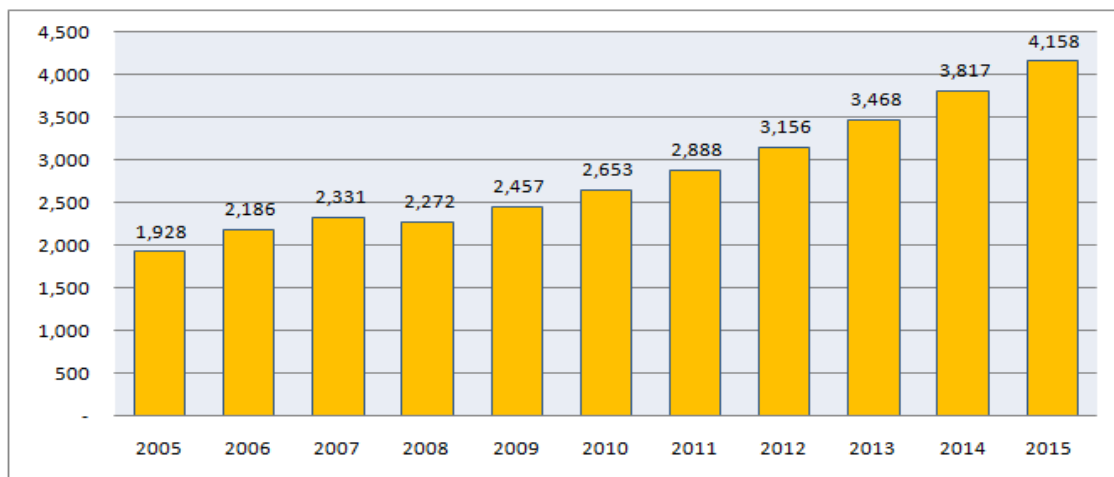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0-'15 CAGR	
극장용	970	1,101	1,154	1,255	1,447	1,604	1,795	2,002	2,240	2,505	2,768	11.5%	
홈비디오	합계	958	1,085	1,168	1,006	996	1,033	1,072	1,124	1,191	1,266	1,334	5.3%
	판매	450	508	557	609	606	656	700	754	817	890	958	7.9%
	대여	508	577	611	397	380	377	372	371	374	377	377	0.0%
온라인	-	-	-	-	-	-	-	-	-	-	-	-	-
모바일	-	-	9	11	14	17	22	29	36	45	55	26.8%	
합계	1,928	2,186	2,331	2,272	2,457	2,653	2,888	3,156	3,468	3,817	4,158	9.4%	
전년대비 성장률		13.4%	6.6%	-2.5%	8.1%	8.0%	8.9%	9.3%	9.9%	10.1%	8.9%		

자료원: MPAA(2010); PWC(2010); Informa(2007); 삼정KPMG 재구성

[그림 III-29] 중남미권 영화 시장 분야별 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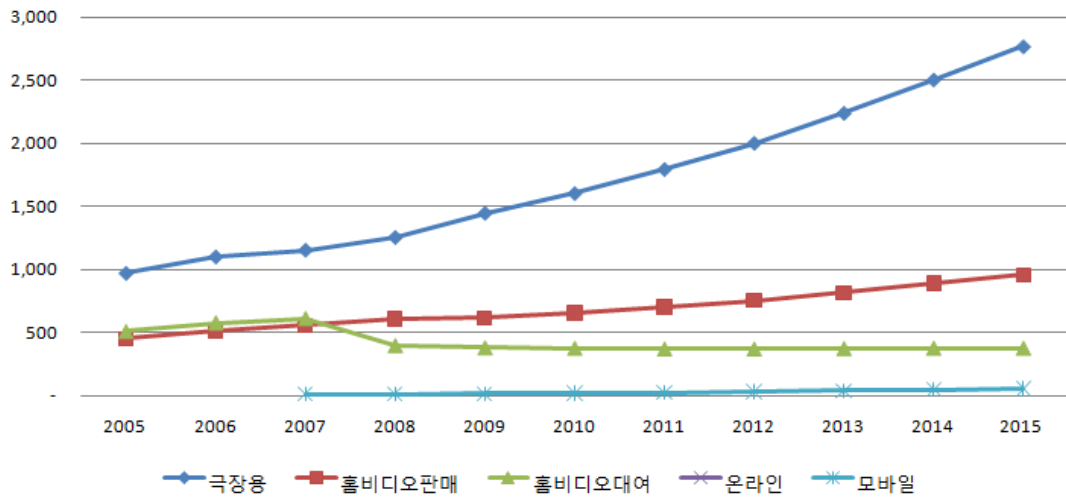


자료원: MPAA(2010); PWC(2010); Informa(2007); 삼정KPMG 재구성

중남미권 영화 시장의 분야별 규모추이를 살펴보면 박스오피스(극장용) 시장규모 증가가 높게 전망된다.

[그림 III-30] 중남미권 영화 시장 분야별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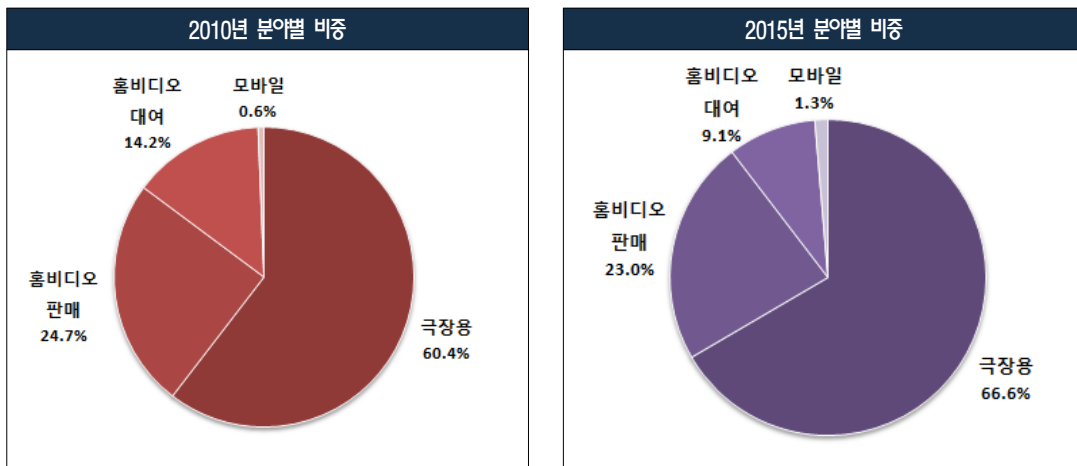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원: MPAA(2010); PWC(2010); Informa(2007); 삼정KPMG 재구성

2010년 중남미권 영화 시장의 분야별 비중을 살펴보면 박스오피스(극장용)가 6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홈비디오 판매 시장이 24.7%, 홈비디오 대여 시장이 14.2%, 모바일이 0.6%의 순으로 나타난다. 2015년에는 극장용 박스오피스 시장이 60.4% → 66.6%로, 모바일 시장이 0.6% → 1.3%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홈비디오 시장은 판매가 24.7% → 23.0%로, 대여가 14.2% → 9.1%로 감소세가 전망되고 있다.

[그림 III-31] 2010년과 2015년 중남미권 영화 시장 분야별 비중



자료원: MPAA(2010); PWC(2010); Informa(2007); 삼정KPMG 재구성

2. 멕시코 영화 시장

한국영화진흥위원회의 해외시장 자료¹⁾에 의하면 멕시코 영화 시장은 2010년 상반기 주말 박스오피스의 대부분을 할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차지하면서 멕시코 자국영화 중에서 흥행작은 등장하지 않

았으며,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헐리우드 영화에 의존하는 시장구조 행태를 보이며 이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44> 2010년 상반기 주말 박스오피스 현황

기간	박스오피스1위	해당주말 흥행수입(US \$)	
1월	1주	아바타	\$12,262,108
	2주	아바타	\$8,181,558
	3주	아바타	\$8,041,359
	4주	아바타	\$6,587,070
	5주	아바타	\$7,271,909
2월	1주	아바타	\$5,404,223
	2주	울프맨	\$9,348,732
	3주	울프맨	\$7,123,621
	4주	울프맨	\$6,029,467
3월	1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0,712,923
	2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9,192,948
	3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6,784,616
	4주	드래곤길들이기	\$7,211,221
4월	1주	드래곤길들이기	\$6,757,626
	2주	드래곤길들이기	\$6,783,497
	3주	타이탄	\$10,654,691
	4주	타이탄	\$73,113,53\$
5월	1주	아이언맨2	\$11,555,886
	2주	아이언맨2	\$5,736,258
	3주	로빈후드	\$7,755,779
	4주	로빈후드	\$6,292,186
	5주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8,250,307
6월	1주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6,856,604
	2주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4,031,392
	3주	토이스토리3	\$17,620,896
	4주	토이스토리3	\$11,587,814

자료원: Box Office Mojo; 한국영화진흥위원회(2010.8.31.)[멕시코]

최근 10년간 멕시코 영화시장에서 상영된 국내의 작품분포를 살펴보면 다음의 < 표 III-45> 과 같다 2000년도부터 멕시코의 자국영화 상영작 수는 해마다 증가해왔으며 2009년에는 54 편의 멕시코 영화가 상영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외국영화의 비율은 증감을 반복하며, 2009년은 253편으로 전년도보다 24편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상영작수 역시 조금씩 증가하면서 2000년 241편에서 2009년에는 307편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멕시코 영화시장의 성장에는 10년 전 전환점을 마련해준 <아모레스 페로스(2000)> 라는 작품이 계기가 되었다. 칸 영화제에서 호평을 거두면서 이후, 전세계적으로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작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작품의 성공을 시작으로 멕시코 시장은 10년 동안 자국영화의 상영작 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영화진흥위원회(2010.8.31.)[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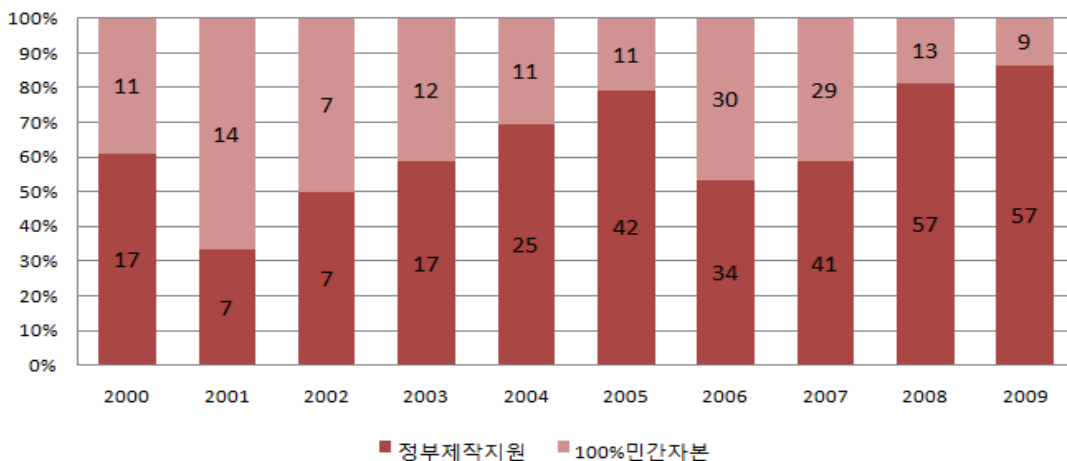
<표 III-45> 2000-2009 멕시코 상업작 수

	멕시코영화	외국영화	합계
2000	16	*	241
2001	19	*	250
2002	17	*	260
2003	25	*	280
2004	18	260	278
2005	26	253	279
2006	33	265	298
2007	43	262	305
2008	49	277	326
2009	54	253	307

자료원: IMCINE(멕시코영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2010.8.31.)[멕시코]

그러나 2010년 이후 거의 매주 한 편 이상의 자국 영화가 개봉되고 있지만 이처럼 헐리우드 대작들 앞에서 멕시코 영화가 흥행성적표를 내밀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08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영화의 편당 제작비는 약 150만 달러로 자국영화를 극장에서 관람하는 경우는 전체 관객의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멕시코의 영화 산업은 아직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나,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꾸준히 자국 영화 제작에 힘쓰고 있다. 그 결과, 지난 십여년간 제작편수는 두 배 이상, 자국 영화의 극장상영비용은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9년 말 국의 멕시코 진흥원 예산감축으로 인한 논란이 있었으나, 삭감안이 무효화되면서 다시 멕시코 영화계는 안정을 되찾았다. 2010년 멕시코영화진흥원의 예산은 약 3억 5천 7백만 페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70여 편의 자국 영화 제작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다.

[그림 III-32] 2000-2009년 멕시코영화 제작편수 현황



자료원: IMCINE(멕시코영화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2010.8.31.)[멕시코]

멕시코 영화계에서 헐리우드 대형배급사들이 70% 정도의 시장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중소배급사들은 특성화된 생존전략으로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멕시코의 독립배급사들은 칸, 토론토, 베를린 등 국제영화제와 아메리칸 필름 마켓 등을 돌며 해외영화를 들여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의 투자규모는 적게는 1만 달러에서 많게는 40만 달러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멕시코의 중소배급사 중 하나인 시마(Zima)는

고정된 관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호러영화와 같은 장르영화를 주요 콘텐츠로 유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흥행 위험성을 최소화하였다. 퀄리티 필름스(Quality Films)는 해외의 다양한 영화배급은 물론 자국영화의 배급에도 적극적인 회사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의 노력으로 <학생(El Estudiante)> 라는 작품이 2009년 멕시코 영화 최고의 흥행작이 될 수 있었다.

2008년 기준 멕시코 극장업체별 시장점유율은 씨네폴리스(53.2%)와 씨네멕스(14.9%) 두 업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셉션>의 개봉당시 멕시코 개봉을 앞두고 배급사인 워너브라더스와 멕시코 극장체인업계 일부 업체 간의 대표수입금 분배를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되면서 극장입장료와 영화계의 수입구조에 대한 쟁점이 이슈가 되었다. 워너브라더스는 멕시코 극장체인업계 1.2위를 달리고 있는 씨네폴리스와 씨네멕스에게 대표수입의 50%를 배급사 몫으로 요구하였고 두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III-46> 2008년 멕시코 극장업체별 시장점유율

업체명	시장점유율
Cinèpolis	53.2%
MM Cinemas	15.2%
Cinemax	14.9%
Cinemark	7.3%
Lumiere	2.5%
기타	9.5%

자료원: 멕시코 영화영상물산업 국가위원회(CANACINE); 한국영화진흥위원회(2010.8.31.)[멕시코]

<인셉션>은 다른 극장체인망을 통해 개봉을 했으나, 멕시코 5천여개의 스크린 중 두 업체가 약 3,900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멕시코 극장입장료 평균가격은 해마다 상승하여 2009년에는 평균가격이 43페소에 이르렀다.

<표 III-47> 2000-2009년 멕시코 극장입장권 평균가격

(단위: 페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가격	28	29	31	33	33	35	37	39	39	43

자료원: IMCINE(멕시코영화진흥위); 한국영화진흥위원회(2010.8.31.)[멕시코]

멕시코의 극장수입 분배구조는 2010년을 기준으로 극장입장료의 평균가격을 50 페소라고 할 경우, 부가가치세 16%를 제외한 42페소를 극장업체와 배급사가 나누게 된다. 통상적으로 극장업체가 63%, 배급사가 37%를 가져가게 되는데 배급사는 이 금액에서 마케팅 비용은 물론 프린트 비용까지 환수해야 한다. 멕시코의 배급사 순이익이 전체 극장수입의 25%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극장수입의 대부분은 상업업체의 차지가 됨으로써 영화계 전반의 수입구조에서 제작투자에 대한 환원이 순조롭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브라질 영화 시장

2010년 브라질 영화 시장은 전체 약 1억 3,436 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였으며 약 12억 5,655 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관객수는 198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관객은 19.3%, 박스오피스 수익은 29.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월별로는 7월 > 10월 > 1월 순으로 전체 관객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미국 영화를 관람한 관객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영화의 관객수는 10월이 가장 높게 나타나 조금 차이를 보였다.

<표 III-48> 월별 자국 및 해외 영화 관객수

(단위: 명)

기간	브라질	미국	기타	전체
1월	1,699,001	14,793,062	257,342	16,749,405
2월	372,336	7,546,186	181,716	8,100,238
3월	185,526	6,197,282	190,182	3,572,990
4월	3,331,061	8,395,573	481,462	12,208,096
5월	698,603	8,017,101	192,491	8,908,195
6월	159,576	7,284,978	185,361	7,629,915
7월	568,646	18,000,439	293,662	18,862,747
8월	673,315	8,451,094	153,534	9,277,943
9월	3,528,874	6,607,413	322,623	10,458,910
10월	9,428,770	7,317,763	194,042	16,940,575
11월	3,340,493	6,081,598	389,214	9,811,305
12월	1,241,556	7,343,926	258,719	8,844,201
전체	25,227,757	106,036,415	3,100,348	134,364,520

자료원: ancine

배급사 유형에 따른 작품 및 관객수 현황은 전체 시장에서 독립 배급사의 비중이 69.7%로 메이저 배급사의 비중보다 높은 것이 브라질 영화 시장의 특징이다. 그러나 배급사별 관객수는 역시 메이저 배급사의 비중이 73.9%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영화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독립 배급사의 작품수가 77.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작품에 따른 동원 관객수 역시 독립배급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49> 배급사 유형에 따른 작품수 및 관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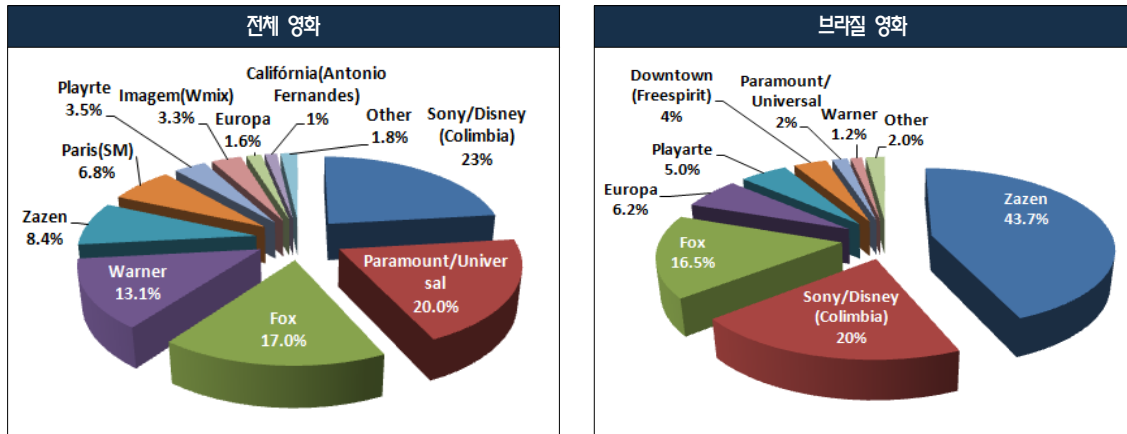
배급사 유형	전체				브라질 영화			
	작품수(편)	%	관객수(명)	%	작품수(편)	%	관객수(명)	%
메이저	154	30.3%	99,342,875	73.9%	30	22.1%	9,985,868	39.6%
독립 배급사	355	69.7%	35,021,645	26.1%	105	77.9%	15,241,889	60.4%
전체	509	100.0%	134,364,520	100.0%	135	100.0%	25,227,757	100.0%

자료원: ancine

시장에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배급사는 전체 영화 시장에서는 Sony/Disney(Columbia)가 2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Paramount/Universal이 20.0%, FOX가 17.0%, Warner가 13.1%로 메이저 배급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영화의 경우는 독립배급사인 Zazen이 43.7%, Sony/Disney(Columbia)가 20.0%, FOX가 16.5%, Europa가 6.2%로 Zazen의 비중이 메이저 배급사들의 전체 비중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III-33] 배급사 시장점유율



자료원: ancine

장르별 비중은 픽션이 80%를 차지하는 가운데, 애니메이션 장르가 작품수의 비중보가 많은 관객을 불러들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작품수에 따른 관객수를 비교한 수치에서도 픽션의 4 배에 가까운 관객수를 보이며, 높은 흥행성공률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브라질 영화의 장르별 현황을 살펴보면 애니메이션 작품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큐멘터리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수(42.7%)에 비해 관객수(1.0%)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50> 장르별 현황 : 전체

장르	작품수(편)	%	관객수(명)	%	관객수/작품수
애니메이션	13	4%	22,943,635	18.5%	1,764,895
다큐멘터리	45	15%	503,100	0.4%	11,180
픽션	244	80%	100,797,849	81.1%	414,806
기타	1	0%	4,068	0%	4,068
전체	303	100.0%	124,248,652		411,419

<표 III-51> 장르별 현황 : 브라질 영화

장르	작품수(편)	%	관객수(명)	%	관객수/작품수
애니메이션	-	-	-	-	-
다큐멘터리	32	42.7%	238,771	1.0%	7,462
픽션	43	57.3%	23,767,234	99.0%	565,887
전체	75	100.0%	24,006,005	100.0%	324,405

자료원: ancine

개봉 첫 주 250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배급된 작품수는 31편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관객은 6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브라질 영화 시장 역시 상영관수 확보가 영화 흥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52> 개봉 첫 주 상영관수 기준 현황 : 전체

개봉 첫 주 상영관수	작품수(편)	%	관객수(명)	%	관객수/작품수
1 - 6	90	29.7%	669,162	0.5	7,435
7 - 20	54	17.8%	1,029,002	0.8	19,056
21 - 50	40	13.2%	3,318,358	2.7	82,959
51 - 100	36	11.9%	4,341,543	3.5	120,598
101 - 150	15	5.0%	5,059,280	4.1	337,285
151 - 250	34	11.2%	24,038,576	19.3	707,017
250이상	31	10.2%	85,792,731	69.0	2,767,507
불확실	3	1.0%	N/D	N/D	N/D
전체	303	100.0%	124,248,652	100.0%	411,419

자료원: ancine

브라질 영화의 경우 250개 이상의 상영관을 확보한 작품이 5편으로 대규모 상영은 메이저 배급사를 바탕으로 하는 할리우드 영화가 대부분으로 차지할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53> 개봉 첫 주 상영관수 기준 현황 : 브라질 영화

개봉 첫 주 상영관수	작품수(편)	%	관객수(명)	%	관객수/작품수
1 - 6	35	46.2	105,212	0.4	3,006
7 - 20	16	21.3	240,807	1.0	15,050
21 - 50	6	8.0	371,568	1.6	61,928
51 - 100	4	5.3	387,542	1.6	96,886
101 - 150	1	1.3	272,862	1.1	272,862
151 - 250	5	6.7	3,110,398	13.0	622,080
250이상	5	6.7	19,517,616	81.3	2,903,523
불확실	3	4.0	ND	ND	ND
전체	75	100.0	24,006,005	100.0%	324,405

자료원: ancine

또한 메이저 배급사와 독립 배급사 모두 자국 영화 보다는 해외 영화 배급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메이저 배급사의 경우는 해외 영화를 통한 관객수가 89.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독립배급사는 자국 영화와 해외 영화의 관객수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표 III-54> 배급사 유형에 따른 자국영화 및 해외영화 현황

구분	메이저 배급사				독립 배급사			
	작품수(편)	%	관객수(명)	%	작품수(편)	%	관객수(명)	%
자국영화	13	13.5	9,951,781	10.9	62	30.0	14,054,224	43.0
해외영화	83	86.5	81,625,955	89.1	145	70.0	18,616,692	57.0
전체	96	100.0	91,577,736	100.0	207	100.0	32,670,916	100.0

자료원: ancine

메이저 배급사를 통해 개봉된 브라질 영화의 작품수가 약 2.5배 정도로 많지만 관객 동원수는 독립 배급사의 작품이 57.7%로 전체 관객수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자국 영화 배급에 있어서는 독립 배급사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55> 배급사 유형에 따른 100 개 이상의 상영관 개봉 브라질 영화

구분	메이저 배급사				관객수/작품수
	작품수(편)	%	관객수(명)	%	
메이저 배급사	8	72.7	9,685,474	42.3	1,210,684
독립 배급사	3	27.3	13,215,402	57.7	4,405,134
전체	11	100.0	22,900,876	100.0	1,334,587

자료원: ancine

실제로 2010년 브라질의 영화 흥행 순위를 살펴보면 Zazen 이라는 독립배급사의 <Tropa de elite 2> 라는 작품이 1,1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으며, 102억 브라질 달러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슈렉 포레버>, <트와일라잇: 이클립스>, <앨범과 슈퍼밴드 2> 등이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두었으며, 10위권 내에 브라질 영화가 3편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2010년 개봉영화 흥행순위

순위	작품명	배급사	Copies	관매	관객수	수익(R\$)
1	Tropa de elite 2	Zazen	610	763	11,023,475	10,232,011,416
2	슈렉 포레버	Paramount/Universal	779	687	7,368,374	7,047,183,500
3	트와일라잇:이클립스	Paris(SM)	703	918	6,179,590	5,260,320,647
4	엘빈과 슈퍼밴드 2	Fox	361	416	5,155,971	3,882,364,600
5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1	Warner	724	929	4,401,163	3,765,501,944
6	토이스토리 3	Sony/Disney (Columbia)	480	496	4,351,729	4,238,419,452
7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Sony/Disney (Columbia)	438	492	4,344,557	4,793,363,959
8	Nosso lar	Fox	402	444	4,060,304	3,612,608,300
9	Chico Xavier	Sony/Disney (Columbia)	343	392	3,412,969	3,027,903,300
10	아이언맨 2	Paramount/Universal	575	632	3,227,105	2,835,898,000
11	타이탄	Warner	303	438	2,502,709	2,845,927,900
12	셜록홈즈	Warner	305	322	2,472,825	2,199,683,200
13	슈퍼배드(Despicable Me)	Paramount/Universal	250	387	2,425,161	2,342,304,300
14	가라데키드	Sony/Disney (Columbia)	375	399	2,104,707	1,768,792,535
15	드래곤길들이기	Paramount/Universal	353	378	2,044,487	2,193,778,400

자료원: ancine